

슈티르너: 유일자와그소유

막스바진스키

막스바진스키
슈티르너: 유일자와그소유
1907 년 5 월

차례

I.	3
II.	5

I.

벤자민 R. 터커는 1845 년순진한독일사상가카스파르슈미트가막스슈티르너라는필명으로쓴『유일자와그소유 Der Einzige und sein Eigentum』을번역출판했다. 이책은스티븐 T. 바잉턴이엠마헬러숨과조지숨의도움으로번역하였다. 터커씨는그가쓴서문에서“오류와불완전성에대한책임”은그가지겠다고밝혔다. 그렇기에그는J.L. 워커가주장한바, 슈티르너가개인주의적우상화를수용하였다는견해에대해서도책임을져야할것이다.

슈티르너는다음과같이말했다. “나는어떠한대의로부터도비롯하지않는다.”¹ 그리고개인주의적아나키스트들은슈티르너로부터비롯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들은이미슈티르너의탄생과죽음의장소에추모공간을마련하기위한돈을베이루스와베를린으로보내고있다. 그들은신실한순례자들처럼베이루스로향하고, 음악의천재리하르트바그너를호모한다. 조만간슈티르너의송배자들은베이루스를감염시키기시작할것이고, 우연히도베이루스의호텔숙박료를인상시킬것이다. 가이드북출판자들은이에언서를잘활용할것이고, 여행객들을위한슈티르너사원같은것을건설할것이다.

무해한부르주아사이비다. 그리고자연스럽게다른이론적으로개인주의적아나키스트인피에르조지프프루동을떠올리게한다. 그는파리의 2 월혁명에대해“싫건좋건, 우리는볼레셋인들에게항복해야한다”고적은바있다.

아마도 J. L. 워커박사는슈티르너의책서문에서 1848 년의“소위혁명운동”에대해거만하게언급할때이러한항복을고려했을것이다. 이저명한박사가죽었다는것이안타깝다. 그렇지않았다면, 그는프러시아를보고혁명이, 최소한하나의국가에대해서는, 봉건주의의잔재를쓸어낸다는도움을줄수있다는것을알수있었을텐데말이다. 타협노선을택하고, 결과적으로반동을초래한것은혁명가들이아니다. 오히려소극적저항의대전사들이반동을초래했다. 터커나마카이같은자들말이다.

워커박사는니체가슈티르너를읽었고, 아마도슈티르너의사상을도용하여스스로를치장하면서, 세상이그표절을발견하지못하게하기위해슈티르너를언급하지않았다말하면서일말의가책도느끼지않는듯하다. 워커사도는그의신과같은주인에게상당히집착한다. 그는“니체는수백명의저자들을언급한다. 그가모든것을읽었으면서, 슈티르너를읽지않았던말인가?”라고의심한다.

이러한오명은, 심리학적이유들로지울수있다.

그저작들속에서니체는스스로를진실성의신도라칭한다. 그는성실함과진실함을갈망한다. 그스스로를다른이들에게“정당화”하기위해서가아니라 (니체는, 슈티르너가그러했을것처럼, 이러한것을꾸짖을것이다) 니체의내적성

¹ 바잉턴은이를다음과같이오역했다. “나에게, 모든것은아무것도아니다.(All things are nothing to me)”

향과순수함이그를진실한인간으로만든다. 니체가“Ich wohne in meinem eignen Haus”²라고자평할때, 이것은다른그어떤동료저자들보다더정당하다. 그리고이러한니체가왜표절을해야하는가? 니체가아이디어를훑칠필요가있었는가? 니체를죽인것은, 그아이디어의과도한충만함인데?

이에더하여, 니체가그영웅적행보를더할수록, 그는더욱고독해져갔다는 사실을이야기하도록하자. 그는염세주의자가되지는않았지만, 그넘쳐흐르는재능을들어줄수있는귀도, 잡아줄손도없었기에고독할수밖에없었다.

그가이정신적고립에얼마나고통받았는지는그의수많은저작들을통하여드러나고있다. 그는조화로운합의를, 그의본성과어울리는이념과감정을위해과거와현재를탐색했다. 그가리하르트바그너를얼마나열렬히숭배하였는가! 그길이 너무멀다는것을발견함에그의슬픔이얼마나깊어졌는가! 니체는그의후기작품에서쇼펜하우어철학의가장단호한적이되었다. 하지만이것이니체가쇼펜하우어라는사상가에대한경의를표하는것을멈추게하지는않았다. 니체는쇼펜하우어에대해“보라. 누구도그의주인이되지못하니”라고쓴바있다.

니체가슈티르너를읽어본적이있다면, 그는그가스탕달과도스토예프스키에대하여그러했듯이, 슈티르너에대해적합한인정과감사를표했을것이다. 특히니체가친밀한영혼이라생각한도스토예프스키의경우, 니체는그가 (도스토예프스키로부터) 그어떤교과서보다더많은인간심리를배웠다고언급한바있다. 니체가그학술적영감을얻은근원을숨기는것처럼보이지는않는다.

내가보기에슈티르너와니체간에큰학술적연관성이있는것같지는않다. 물론둘모두는개인성의해방을위해투쟁한다. 둘모두는개인이모든“신성함”에맞서, 모든신성불가침의자기부정에맞서, 모든기독교적·도덕적청교도주의에맞서개인의무제한적진보를긍정한다. 하지만니체의개인주의는슈티르너의개인주의와다르다.

슈티르너의개인주의는울타리를치고스스로를그안에가둔다. 울타리안에는너무도추상적인내가, X-ray 아래에있는것처럼개인으로만한정되어, 울타리바깥을향해“내벽을넘지마!”라고울부짖는내가배회한다. 카를마르크스는슈티르너의〈유일자〉가처음본것은좁은베를린거리쿠퍼그라벤의빛이라며비꼬았다. 악의로가득한비판이었다. 하지만슈티르너의개인주의가완고함과경직성으로부터자유롭지않다는것은부정할수없는사실이다. 반면니체의개인주의는의기양양한솔로건이자전투함성이다. 무엇보다니체의개인주의는인간성과모든세상을포용하고흡수함으로써풍요로워지고, 삶에기본적인힘을침투시킨다.

하지만왜이두위대한인물들을비교해야하는가? 차라리 M. 메서(M. Messer) 씨(슈티르너에관한에세이를쓴바있다) 가인용한괴테가그와쉴러의관계에대한말말을반복하도록하자. “이처럼중대한사람들을가졌다는것에감사하라.”

을희생한다. 이로써그가가장중요하게생각하고, 가장즐기는것을잃어버리게되는것이다.

만약우리의개별성이호흡만큼중요한것이라면이에대한폭력은얼마나무시무시한것인가! 하지만아직우리의음식, 음료, 집에대한권리는개인성의상실아래만들어진다. 이것들은소유가없는수백만의개인성이산업의도구로전용될때에야(웅색하게도) 주어진다.

슈티르너는소유가개인성에반한다는사실을고아하게도무시한다. 경쟁에있어서, 우리가개별성을배반하고포기하는것에비례하여승리하게된다는것을무시한다. 아마도상속을받아부자가된일부만이일정부분자기가원하는대로살아갈수있을것이다. 하지만이들에게조차도, 그것이상속자에대한개인성의독자성을드러내는것은아니다. 상속의특권은멍청하게도다양한선입견과“개인성”과같은망령들로부터비롯한다. 프티부르주아지와졸부들의개인주의는“개별자”의지평을넓히기보다는오히려좁힌다.

현대코뮌주의자들은슈티르너보다더개인주의적이다. 코뮌주의자들은종교, 도덕, 가족, 국가만이아닌사유재산역시망령이라여긴다. 사유재산의이름으로개인은예속된다. 오늘날의개별성은국가, 종교, 도덕의총합보다더사유재산에예속된다.

현대코뮌주의자들은사회의이름으로개인에게무엇을하라고명령하지않는다. 코뮌주의자들은“개인의자유와개별성을통해경제적조건(생산, 분배)가조직되어야하고, 이로써그자유와개별성을보장할수있다.”고주장한다. 이로써조직을통해복종과전제주의를몰아내어야한다. 이주된조건은개인이소유나생계를위해스스로무릎꿇거나낮추지않아야한다는것이다. 코뮌주의는개인의자유와개별성의근간을건설한다. 나는개인주의자이기에코뮌주의자다.

슈티르너의저작에서‘요구’라는단어들을사적재산의해소와수용으로바꾸어낸다면, 코뮌주의자들은슈티르너에온전히, 진심으로동의할수있다.

개인주의와코뮌주의는함께가는것이다.

² 직역하자면, “나는내집에산다.”

가이창백한선함을얼마나괴롭혔는지보라. 한자유로운창녀가천명의처녀들의 선을회색으로만들지니!”

이렇게개인을지배하는예속의사슬이하나하나떨어져나가고, 다시금그어느 때보다강력한“신성한정언명령”이개인을휘감는다.

슈티르너는, 참으로해방적인작품을만들었다하겠다.

추상적으로생각해서, 예고는이제유일자가된다. 하지만그의소유는어떻게 되는가? 이지점에서슈티르너의철학은단지불충분한추상에불과해진다.

사회를완전한개인으로분해하는것은경제적으로정반대의것을만들어낸다. 슈티르너의삶그자체야말로개인이현존하는조건에대한고독한전투에서얼마나 무력한지를증명한다.

슈티르너는모든망령을파괴한다. 하지만슈티르너는빛을잡지못한다는물질 적필요에휘둘렸다. “망령”의힘이그의“유일자”의힘보다더강했다. 슈티르너의 채권자들은그를감옥으로보냈다. 슈티르너는자유경쟁이단지아첨과관식충이 들에게인공적우월성을제공하는도박일뿐이라고선언했다. 하지만슈티르너는 동시에 (그가보기에는) 우리모두의개별적소유를박탈하여모두를거지로만들고 원주의에도반대했다.

하지만어차피어떠한재산도가지지못하는개인들에게는아무런관계가없지 않은가. 이개인들은그들이소유와재산으로부터지속적으로배제되어, 그들의 “개별성”과“유일성”을희생할수밖에없었기에거지가되었는데말이다.

우리시인들, 사상가들, 예술가들, 발명가들의삶이왜그리도순교자적이었 는가? 이개인주의자들이너무나도유일하고유일자이기에소유와존재를위한최 소한의투쟁도하지못해서가아닌가? 이러한투쟁의과정에서그들은그개인성을 생계를위해파는수밖에없다. 우리 (코뮌주의자) 들이‘본질적으로타락했고’위 선적으로신념을억압하는’가? 왜냐하면개인은스스로소유하지못하며, 참된 자신이되는것이허락되지않았기때문이다. 개인은사실상시장에팔리는자산이 되고, 타인의소유를불리는도구로전용된다.

사업체가개인을전용하는것은다음과같다. 예를들어신문사에슈티르너적인 유일자가있다고해보자. 이일터에서유일자의지적능력은출판사와주주들의부 를위해팔려나간다. 개인성은사업속에서프로크루테스의침대³ 위에놓인다. 생 계를확보하기위해, 많은경우마음에들지않는방식으로, 그개인은자신의개별성

³ 역자주: 프로크루테스 (그리스어: Προκρούτης) 는그리스신화에나오는인물이다. 신 화에따르면프로크루테스는그리스아티카의강도로아테네교외의언덕에집을짓고살면서강도질 을했다고전해진다. 그의집에는철로만든침대가있는데프로크루테스는지나가는행인을불잡아자 신의침대에누이고는행인의키가침대보다크면그만큼잘라내고행인의키가침대보다작으면억지로 침대길이에맞추어늘여서죽였다고전해진다. 그의침대에는침대의길이를조절하는보이지않는장치 가있어그어느누구도침대에키가딱들어맞는사람은없었다고한다. 프로크루테스의침대라는말은 바로이프로크루테스의이야기에서유래된말로자기생각에맞추어남의생각을뚫고치려는행위, 남에게해를끼치면서까지자신의주장을굽히지않는횡포를말한다.(출처: 한국위키피디아)

순수하고단순한개인주의의대변인들이다른개인들, 이를테면평범한도덕 주의자들에게짓곳고공졸하다는사실은터커의서문이, 슈티르너의연인인마리 댄하르트에대하여극도로무신경하게서술했다는것으로증명된다. 슈티르너는 『유일자와그소유』를연인에게헌정했다. 이를맥케이와터커는다음과같이검열 한다.

“맥케이의조사는마리댄하르트가슈티르너와어떤것도공유하고있지않다는 사실을밝혀냈다. 그리고그렇기에슈티르너는그녀에게어떠한존중을바칠필요 도없다. 그렇기에나는슈티르너의헌정을역사적정확성의측면에서다시쓰기로 결정했다.”

터커가개인주의나〈유일자〉를터커주의와혼동한것이틀림없다.

막스슈티르너와마리댄하르트가당대에서로어떠한공통점을가지고있는지 는, 슈티르너-댄하르트가터커-맥케이보다더잘아는것이아닌가.

하지만이문제를너무심각하게받아들이지말자. 슈티르너는그송배자들과문 학적집행관들때문에정리할수는없는범주에속한다. 트라우벨씨와「더커서베 이터」가아직내가윌트휘트만을경멸하게하지는못한것처럼, 개인주의적이나 키스트들은아직내가슈티르너를혐오하게만들지는못한다.

번역의심대한오류는슈티르너시기독일의학술적환경을제대로묘사하지못 하게한다. 미국의독자들은여전히슈티르너가지향하던조건과성격에대해무지 한채로남아야한다. 그리고이것은무엇보다코뮌주의자들에관하여는정적하지 못하다. 슈티르너는빌헬름베이트링과논쟁을벌였다. 그리고베이트링의코뮌주 의는크로포트킨이나레클루스가주창한현대코뮌주의와외형적으로라도 닮지않 았다. 현대코뮌주의는생물학, 심리학, 경제학에근거한세계관의발명이었다.

영어판 『유일자와그소유』는번역자가정확하고완성된작업물을내놓기위 한노력을이토록해태할수있다는사실로놀라움을준다. 영어판 『유일자와그소 유』는너무나도문헌학적인반면, 너무나도비직관적인작업물의사례라하겠다. 슈티르너자체도이에책임이있다. 그는모든망령들에대해저항하지만, 동시에추 상의명수이기때문이다.

II.

슈티르너의 『유일자와그소유』는혁명적인작품이었다. 그저작은압제받고 대상화된이들의이름으로, 그“신성한원칙들”에대한개인의반란이었다. 슈티르 너는폭압적세력의형이상학을드러낸다. 루터가 95 개조반박문을비텐베르크 대학의문에게시한것처럼, 슈티르너의개별자적독립성의선언은도덕, 가족, 국 가등모든“신성한”것에도전장을던진다. 슈티르너는“불가침의기구”의가면을 벗기고, 그가면뒤에는망령들만이있음을드러낸다. 신, 영혼, 이상, 진실, 인간

성, 애국심모두는슈티르너에게가면에불과하고, 그뒤에는칸트적정언명령들이 개인을억압하고, 조련하면서개인의모든주도권·자주성·소유를빼앗는다. 이모든것들은스스로가훌륭한것이라주장하고, 모든부문에서세련된것이라주장하며존경과송배를요구하고, 개인이그앞에무릎꿇을것을요구한다.

이모든것에저항하는것은“나”의개별성과유일성을통한반란이다. 이반란은 존중과복종을억제한다. 이반란은“영원불멸한진실”의잔재에서그발을떨쳐일어나, 이상과개념이라는주인들로부터개인을해방할것을부르짖는다. 이로써자유롭고, 자주적인애고가가인들의주인이될것이다. 개인은더이상“선”으로부터고통받지도, “악”을피하지도않을것이다. 모든개인은종교도, 도덕도, 국가도없이살아갈것이다. 정의, 올바름, 일반선의개념은더이상개인을옥죄지않을것이다. 무엇보다, 모든개인은이개념들을스스로의관점에서사용할것이다.

슈티르너에게세상의중심은에고다. 에고가바라보는곳에, 에고의세상이탄생하여그힘을발산한다. 에고가온세상을전용할수있다면그로부터그스스로의올바름이확립된다. 에고는세상을독점할것이다. 슈티르너는한개인의자유가다른이들의자유로부터제약되는것을원하지않는다고말하는것이아니다. 슈티르너는개인의자유와개별성은오직그힘에의해서만제약된다고주장한다. 나폴레옹이인류를축구공으로사용했다면, 왜인류는반란하지않았는가?

슈티르너에게민주주의자들과자유주의자들이요구하는자유는, 거지에게던져주는동냥일뿐이다.

J.L. 위커의서문은슈티르너의이러한정신을완전히오해하고있다. 그는“슈티르너를통해우리는정치적자유의철학적근간을얻을수있다”고언급한다. 슈티르너는정치적자유를경멸할뿐이다. 그는정치적자유를권력있는자가권력없는자에게주어준의심스러운호의로바라본다. 슈티르너는유일자로서, 정치적자유를요청하는이들을꾸짖었을것이다. 그는스스로의힘으로그들에게속하는것을가져가는대신인권을요청하고자유와독립을구걸하는자들을비웃는다.

슈티르너의책에서가장진술한부분은, 정치적자유에대한비판으로구성되어있다. 다음인용부분에서이것이잘드러난다.

“정치적자유’를어떻게이해할것인가? 그것을국가와그법으로부터개인의독립이라이해해야하는가? 아니다. 오히려우리는그것이국가와국법에대한개인의복종이라바라본다. 하지만왜‘자유’인가? 아마모든사람이더이상국가로부터분리되지못하고, 국가와직접적이고즉각적인관계를맺고있기때문일것이다. 모든사람은이제시민이고, 왕을포함한다른이의신민인것이아니라‘국가의최고주권자’라칭해지기때문일것이다.”

“정치적 political 자유는국가 polis 가자유로움을의미한다. 종교의자유는종교가자유로움을의미한다. 양심의자유는양심이자유로움을의미한다. 하지만, 이모든것이내가국가와종교와양심으로부터자유롭다거나, 내가그것을치워냈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 이자유들은나의자유가아니다. 오히려나를지배

하고예속하는권력의자유다. 이자유들은국가·종교·양심과같은전제군주들이자유롭다는것이다. 국가·종교·양심, 이전제군주들은나를노예로만든다.”

슈티르너는반도덕적이고그만큼반민주적이었다. 그는루드비히포이어바흐가말하는바“신을인간으로체현하는것”이도덕적속박으로부터개인을자유롭게할것이라믿지않는다. 이것은단지도덕적전제주의를종교로대체할뿐이다. 신은노망이났고활력을잃었다. 인간을복종시키기위해서는더활력있는것이필요했다.

인간에“신의개념”을체화함으로써도덕적명령은정신적요체로변모한다. 그리고이로써인간을외적인것이아닌스스로의정신에예속시킨다. 그리고이로써이전의외적노예제가비도덕적이되는것을두려워하는도덕적공포에근거한내적노예제로대체된다. 우리는외적신으로써의도덕에대하여반란할수있다. 하지만도덕이인간과등치된다면, 도덕은더이상근절할수없다. 신의인간화를통해신은최종적으로승리한다. 인간이외부세력의노예제로부터자유를얻고, 그“내적도덕적필요”에더욱예속된노예가되는것이니말이다.

모든선한기독교인은그가슴에신을모신다. 모든선한도덕주의자들과청교도들은가슴에도덕적경찰관을모신다.

자유사상가들은개인적신을철제한후신의도덕적세균을흡수했다. 이로써그들은도덕적역병에대한면역력을확보했다. 자유사상가들은자랑스럽게도그들이신의도움없이도도덕적이될능력을가졌다고주장한다. 그러면서그들은이도덕이인간에속의사슬을만들고있다고는의심조차하지않았다. 도덕적정언명령이인간을지배자에게더예속할것이기예, 지배자들은행복하게도신에대한믿음을버린다. “더럽게도지독한양심”이각인간의뼈와피에새겨지고흐르는이상, 예속은보장된다.

이연결에대해슈티르너는다음과같이말한다.

“자기포기의피해자를마주하지않을방법은없는가? 내맞은편에앉아있는여자아이는지난 10 년간그녀의영혼을위한빌어먹을희생을했지도모른다. 저풍만한몸매는죽을만큼피곤한머리를감춘다. 그녀의창백한뺨은어린날의혈기를배신하고있다. 저불쌍한어린이의심장에얼마나자주열정이몰아쳤을지, 젊은날의폭풍한힘이그권리를요구했을지! 머리가부드러운베개에파묻힐때, 자연이그팔을파고들고, 피가혈관을돌고, 공상이눈에관능적으로멤돌았을지! 그리고여기에영혼과그외적인지복의망령이나타났을때, 저아이가두려워하고, 손을꼭쥐며, 고통받는눈으로위를바라보며기도했을지. 자연의폭풍은멈추고, 욕망의바다는평온해진다. 천천히피곤한눈꺼풀이그망령아래사라진살을덮을때, 긴장감은그팔사이로몰래빠져나가고, 심장의활기찬파도가마르고, 접힌손은저항하지못하는가슴위에무력하게놓인다. “아아!”라는단말마와함께영혼이평안해진다. 이렇게개인은잠에빠지고다음날아침새로운전투와새로운기로도일어난다. 포기하는습관이열망의열기를식힌다. 그리고젊음의장미는그천국같은빈혈로창백해진다. 영혼은구원받았으니, 몸은사라지리라! 노래여, 비단이여! 너희